

좌익에 휘말린 고통의 세월 北에 끌려가다 我軍의 기습으로 南行행운

시스템 공학센터 성기수 소장
동아일보 90.11.17. 『나의 젊은시절』

나의 어린시절 20년은 순탄하지 못했다. 8·15해방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나의 이름은 학교에선 오야마 요시노리였고 집에선 성기수였는데, 학교에서는 일본말,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게끔 되어 있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농업과 상업을 겸해서 우리집은 30여 가구되는 마을에서 서너번째로 잘사는 편이었고, 두 누님 두 형님과 동생 하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는 아래위 눈치보느라 정신없었지만 자상하신 어머니를 하늘처럼 믿었기에 모든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해가 서쪽 하늘에 45도로 기울면 황소를 몰고나가 해질 때까지 풀 뜯어 먹이는 일이 주로 내 차지였는데 그 동안에 다른 목동들과 콩서리, 밀서리, 소싸움 하는 일이 재미있었고 집으로 올 때 소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와 나에게 왜 그렇게도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일본 치하의 2차대전 중이었기에 국민학생들에게도 비행기 연료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의 관솔을 수집케 했는데, 44년 여름방학 때는 한관이 책임량이어서 간신히 채울 수 있었고, 45년에는 5관을 따오라는 것이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담임선생님의 무서운 권위 앞에서, 반에서 제일 작은 몸집을 하고 있는 나는 체벌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여름방학이 다 가도록 관솔채집은 아예 안해버리고 멀리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8월 15일이 되어 해방이 되었다. 어른들은 흥분하고 떠들썩하였고, 이것이 내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해방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었다. 내 이름과 한국말을 학교에서도 마음놓고 쓸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다. 그런데 해방의 감격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나는 집을 떠나야 하는 큰 불행을 당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사소한 일로 아버지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40리 밖에 있는 다른 국민학교로 전학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시집가 살고 있는 큰누나 집

주소 쪽지를 들고 따뜻한 엄마 품이 있는 고향동네를 등지고 하루종일 걸어서 낮은 산과 물을 건너갈 때 개를 만나도 늑대나 여우가 아닌가 경계하고, 냇물을 건널 때는 떠내려 갈까봐 조심해야 했다.

행복했던 농촌생활은 끝났고 아버지를 때린 담임선생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새 학교에서 1년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졸업식에서 전교수석에게 주는 도지사상을 탈 수 있었다.

2학년이 되자마자 좌익학생 운동에 휘말렸다. 선배들이 「불이 난 집 속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래, 불 끄는 일에 나설래」하고 물어 나는 책상을 떨치고 일어났다. 좌경 학생 운동의 전위 행동대원으로서 나는 6개월간 맹활약했다.

경찰과 우익학생들의 반격으로 조직이 뜯겨져 나가면서 나는 두번 체포되었는데, 상부조직과 동지들의 이름을 대라는 혹독한 추궁에 애국심과 혁명의지로 가득했던 나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 법원에 송치된 다음 벌금형 후 보도연맹이라는 것의 회원으로 강제로 가입이 된 다음 보호자 아버지에게 인계되었고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고향집에 끌려간 나는 반년간 농사일만 거들다가 집 앞의 면사무소 게시판에 나붙은 성주농업 4학년생(지금의 고1)편입학 모집광고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월반한 형태로 다시 학업을 시작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바로 위인 기준형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통한 또 한번의 월반을 시도할 준비가 거의 되었다 싶을 때 6.25가 터지고 우리집은 풍지박산이 된다.

서울에 있던 기준형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나가 참전, 행방불명이 되었다.

우리집은 우선 무사했지만 동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라는 그들의 요구를 아버지께서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군량미를 거두고 소탈구지에 실어 낙동강 전선으로 밤에 보내는 일에도 협조하셨다.

인민군이 퇴각할 때 보도연맹에 이름이 적힌 나는 그들을 따라나섰고, 평양을 거쳐 소련으로 가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할 생각이었다. 밤낮으로 사흘을 걸어서 한밤중에 대전 시내로 접어들었는데 별안간 총성이 천지를 진동했고, 기습당한 것이 분명했다. 길가의 하수구에 몸을 숨긴 나는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대구 사대부중 1학년 때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2학년 선배들을 물

리치고 당당히 3등에 입상, 교장선생님이 조회시간에 내 이름을 발표하던 일이 기억난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얻은 자신감과 긍지는 그후 나에게 두고두고 큰 힘이 되었다.